

< 海外情報 >

尿素國際時勢 C & F \$ 200 臺로 突入

石油, 海上運賃上昇으로 오름勢加速

尿素的 國際時勢는 지난 5月을 고비로 急速히 上昇基調로 바뀌어 지금의 C & F base는 \$ 190 臺에서 一段上昇하여 “ \$ 200 臺로 突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. 이러한 價格의 上昇은 다른 加里나 燐酸肥料의 時勢上昇과 함께 더욱 加速化될 可能性이 強하다.

尿素的 國際價格은 지난 4月頃까지는 緩慢한 上昇氣運을 보이고 있었으나 C & F 170 ~ 180 弗臺를 peak로 低迷의 氣色이 濃厚했다. 이것은 4月の Philippine PPI入札에서 落札된 美国이나 韓國品이 C & F \$ 172, \$ 176 이라는 水準이었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. 그러나 그후 5월에 들어서면서 Bangladesh 나 Pakistan 혹은 Iran의 肥料入札에서 尿素的 價格은 한層 뛰어올라 具體的으로는 Bangla入札에서 Indonesia 品은 C & F \$ 183, 韓國品은 同 \$ 200.50 등으로 參加했고, Pakistan 入札에서는 中近東이나 韓國品이 C & F 197 ~ 208 弗臺로 Offer, 또한 Iran入札에서는

中近東品이 C & F \$ 195 에 落札된 事實로서 明白해졌다.

勿論 이들 入札은 量的으로 적고 더우기 外國借款資金 등을 財源으로 한 것으로서 이點 一般國際時勢와 多少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Philippine 入札以後의 尿素價格이 急速히 上昇基調가 되어 있다는 事例로서 捕捉할 수 있을 것이다.

이와같이 尿素의 國際價格은 5月以來 아무래도 局面을 달리한 것 같은데 이것은 石油價格의 引上情勢와 不安感, 海上運賃의 急激한 上昇 등이 크게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.

따라서 尿素의 國際時勢는 다른 各種 肥料의 高騰과 함께 原油, 海上運賃의 騰勢 등으로 急速度로 뛰어오를 氣勢로서 지금이야말로 “C & F 200 弗時代”를 맞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.

美 DAP, FOB \$ 170 臺에 成約

Italy 등 对歐洲輸出價 올려

最近入手된 情報에 依하면 Brazil 의 Riode Janeiro에서 열린 79年 ISMA年次總회의 會議場에서 美DAP는 FOB bulk 168弗台에서 170弗台로 去來가 成立됨으로써 드디어 160弗台에서 170弗台로 突入하였다고 한다.

一說에는 FOB bulk \$ 174의 成約價로 나온 것으로 伝해지고 있다.

이것들은 美 Phoschemi가 Italy 등 对歐洲輸出로 契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그런데 美DAP輸出價格은 極히 最近 實勢 FOB bulk \$ 168前後, 呼價는 \$ 170以上인 것으로 伝해지고 있었는데 輸出活潑化 등에 뒷받침되어 \$ 170臺로 時勢의 局面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.

年間 100 万吨으로 生産開始

Brazil 이 磷鉍資源開發

Brazil에서 今年初부터 年間 90 万 ~ 100 万吨의 磷鉍石生産에 들어간 事實이 이번에 밝혀졌다. Brazil은 磷鉍資源이 豊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開發에 손을 댈것은 同國의 “리요도세” 鐵鉍開發公社의 子會社인 “바렙뿌”社로서 場所는 “미나스”州 南部의 “다삌라”地區라고 한다.

여기에서 79년부터 年 90 万吨 生産目標下에 生産을 開始하였다는 것으로서 BPL은 80% (P_2O_5 37%)라고 하는데 Cost의으로는 世界의 다른 Sance와 比較하여 相當히 높은 便이라 한다.

따라서 國產品育成策에 依한 開發로서 輸出은 全然 생각할 수 없다고 關係消息通은 伝하고 있다.

Canada 加里, C&F \$110 呼價

Canpo, Brazil Buyer 와 Nego

關係消息通에 依하면 Canada 加里輸出組合 (Canpotex)은 現在 Brazil 關係 Buyer 와의 사이에 当面한 加里供給으로 Nego 中에 있는데, 거기에서 Canpotex 側은 C & F \$ 110 程度의 價格을 提示하고 있다 한다.

“ 캐나다·방쿠 - 바 - ”와 “ 브라질 ”間的 海上運賃이 \$ 25 程度 이므로 C & F \$ 110 이라고 하면 FOB는 \$ 85 程度가 되는 셈인데 이는 加里의 輸出價格이 上昇傾向을 나타내고 있음을 엿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.